

‘환경대응의 방청포장 확산 추세’

(주)한국지러스트
김종협 대표이사



지난 9월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존재 없었던 ‘방청 포장’에 관한 기술 세미나가 열렸다. 그 자리는 (주)한국지러스트(대표 김종협·56)라는 회사의 창립 기념을 겸한 자리였다.

얼핏 이름도 생소한 한국지러스트는 국내 처음으로 기화성 방청필름(ZERUST VCI FILM)을 생산하기 위해 김종협 사장이 운영하는 (주)동도상사가 50% 출자하고 미국의 Northern사와 일본의 대양액화가스사가 각각 25%씩 출자해 설립했다. 기화성 방청필름이란 미국의 Northern사와 NASA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세계 특허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동도상사는 베어링 전문유통회사로 연 매출 50억원 규모로 업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분야에서 27년여 동안 종사해오다 다소 의외다 싶은 방청포장 사업에 나섰다.

“베어링 유통업을 오래 하면서 좋은 기계, 훌륭한 부품이라도 부식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결국 기업이미지까지 녹이 끼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종래의 방청유나 구리스는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단점이 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침 일본의 한 전시회에서 지러스트라는 혁신적인 방청필름을 접하고는 무언가 새로 눈이 뜨이는 듯했습니다.”

김 사장은 92년부터 지러스트를 수입 판매해오면서

가격을 좀더 낮추고 사용자의 편의를 보다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을 하고는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지러스트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의 방청처리에 사용하는 방청유 등이 전혀 필요치 않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나아가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효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밖에 미·일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방청효과의 우수성은 물론 인체와 식품에도 무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방청작업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방청지나 방청유, 구리스 등을 이용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김포에 공장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방청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기화성 방청필름 채용은 필연적인 추세로 2~3년 내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기존 작업 방식에 의존해오던 작업자의 인식을 바뀌게 하고, 좀더 현장에 밀착해 마케팅을 해나가는 일이지요.”

김 사장은 기업경영의 기본을 ‘성실’로 단언한다. 오십줄의 중반을 넘어섰음에도 대추빛 얼굴이 새로이 환경사업에 투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욕을 지니고 있음을 엿보이게 한다.